

## 저자 요청 취소

## 위 종양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시행 후 응고증후군의 발생률 및 임상적 특징

가톨릭 중앙의료원 부천성모병원

\*정한희, 김태호, 김창환, 한석원, 김재광, 박종원, 차혁환, 허주연, 김보경

**배경:**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은 조기위암을 포함한 위 종양의 치료에 있어 확립된 치료법이지만, 시술 후 여러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. 그 중 응고증후군은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시행 후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지만, 양호한 자연경과를 보이기에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고,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. 이에 저자들은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시행 후 발생하는 응고증후군의 발생률 및 임상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. **방법:** 2012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위 종양에 대해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한 28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그 중 천공이나 감염증 없이 발열, 복통 및 압통을 호소하는 자를 응고증후군 환자로 정의하였고 이들에 대해 유병률, 임상적 특징 및 예측인자에 대해 분석하였다. **결과:** 총 289명 중 13명의 응고증후군 환자가 발생하였다. 그들은 평균적으로  $8.6 \pm 6.3$ 시간의 발열이 있었고, 평균 입원기간은  $7.1 \pm 3.5$ 일로 응고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은 환자들의 평균 입원기간( $5.8 \pm 1.9$ 일)보다 길었다. 하지만 응고증후군이 발생한 모든 환자들은 내과적 치료만으로 약 1주 이내에 다른 문제없이 회복되었다. 또한 응고증후군이 발생한 환자군과 발생하지 않은 환자군의 성별, 나이, 동반질환 등의 개인적 특성과 병변의 위치, 병변의 크기같은 내시경적 특징과 시술과정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**결론:**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 후 응고증후군의 발생률은 4.5%로 모두 내과적 치료만으로 1주 이내에 회복되는 양호한 자연경과를 보였다. 응고증후군의 발생에 있어 개인적, 내시경적, 시술과 관련된 통계학적 유의성을 보인 예측인자는 없었다.